



손발톱 무좀

Beautis 맑은피부과 원준호 원장

핀포인트 레이저 시술 '효과 만점'

통증·부작용 거의 없어

바르는 약 함께 사용뎀

치료 더욱 빨라질 수도

진료실에 있으면 손발톱을 가꾸기 위해 매니큐어를 바른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매니큐어 아래 무좀균이 숨어 있는 경우 굳이 빠르게 증식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가 힘들어진다. 올바른 손발톱 관리를 위해서는 자주 손발톱을 살펴봐야 한다.

손발톱 무좀이 있을 확률이 높은 경우는 ▲ 손발톱이 두껍거나 울퉁불퉁하고 끝이 부서질 때 ▲ 분홍색을 띠지 않고 노란색이나 흰색의 반점이나 줄무늬가 섞여 있을 때 ▲ 다친 적도 없는데 잘 빠질 때 ▲ 발톱에서 냄새가 나며 하얀 가루가 생길 때 등이다.

◇ 손발톱 무좀의 약물 치료
손발톱의 곰팡이가 무좀의 원인균이다. 처음에는 일부 변색되는 정도에 그치지만 진행되면 발톱의 색뿐 아니라 형태도 변하게 된다.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무좀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치료해야 한다는 인식이 낫다.

발톱 전체가 변색되고 바스라질 정도로 두꺼워지거나 발톱 주변 피부에 2차 감염이 일어난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땀이 줄어드는 계절이면 호전되는 피부의 무좀과 다르게, 손발톱 무좀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하게 진행되고 치료가 어려우니 빨리 치료할수록 좋다.

바르는 약 만으로 치료하는 발바닥의 무좀과 달리 발톱무좀은 먹는 약을 이용해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발톱은 죽은 조직인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어 피부와 달리 약의 흡수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케라틴은 약물의 전파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혈관이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손발톱의 끝까지 약효가 전달하려면 수개월 동안 약을 복용해야 한다. 이로 인해 약을 제때에 꾸준히 챙겨먹을 여유가 없는 분들이 중간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간염 등의 동반 질환이 있어 신체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이미 먹는 약이 많은 경우, 임신이나 수유중이라 약을 먹을 수 없는 경우, 약 복용시 속쓰림 등의 불편감이 심한 경우에도 치료가 힘들다.

먹는 약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발톱에 직접 바르는 약물로 치료하기도 하지만 흡수율이 높지 않아 먹는약보다 더 장기간 치료가 필요



원준호 Beautis 맑은피부과 원장이 발톱 무좀으로 고생하는 회사를 핀포인트 레이저로 치료하고 있다.

하고, 매일 바르고 마르길 기다린 후 뒤여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 손발톱 무좀 레이저 치료
기존의 치료가 가진 단점들을 극복한 치료 방법으로 핀포인트 레이저가 있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미 FDA 허가를 받은 핀포인트는 다양한 연구 결과 높은 치료율을 보이는 국내 유일의 손발톱 무좀 전용 치료레이저이다. 이 레이저는 1회 조사 시 엔디야그 파장의 마이크로 펄스 10개를 조사하며, 발톱 속에 섭씨 79도의 열을 전달해 곰팡이를 죽인다. 치료를 반복하면 주변 조직 손상 없이 곰팡이가 균만

을 파괴하여 손발톱이 예쁘게 자라도록 도와준다.

발톱 내부에 열이 제한되기 때문에 통증도 거의 없으며, 아직까지 보고된 부작용은 없다. 충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한달 간격으로 3~5회 정도 치료 받는 것이 좋으며,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을 함께 사용해 치료효과를 배가시킬 수도 있다. 치료에 걸리는 시간이 수분 이내로 짧으며 통증이나 부작용도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 치료의 단점 때문에 치료를 미뤘던 분들이라면 핀포인트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무좀 치료를 고려해 보면 좋을 것이다.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기독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개소

미숙아·선천성질환 고위험

최상의 의료지원체계 구축

광주기독병원(병원장 박병란)은 최근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확장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은 미숙아와 선천성질환을 가진 고위험 신생아(쌍둥이, 다태아, 37주미만의 미숙아, 2.5kg 미만의 저체중 신생아)를 집중치료 할 수 있는 신생아용 중환자실이다.

광주기독병원은 지난해 미숙아와 심장이상 등 선천성 질환을 가진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선정된 후, 그동안 시설 확장 및 개보수와 최신 의료장비를 확충하는 등 지역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춰 개소한 것이다.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는 원내 감염 예방을 위해 별도 공조 시스템으로 3단계 필터(헤파필터)를 사용하는 무

균정성시스템을 갖추었으며, 보안을 위해 인가된 직원만 출입할 수 있는 자동문과 CCTV를 설치하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Omni 복합형보육기, 고빈도 인공호흡기, 이송보육기, 광선치료기, 제세동기, 심장조율과기 등 최신 의료장비 15종 62대를 추가로 구입해 최상의 진료환경을 갖추었다. 또한 소아심장, 소아안과,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외과 등 중증 신생아 진료 관련 전문의의 협진체계도 갖췄다.

광주기독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역센터 개소로 이 지역 고위험신생아의 사망률, 이환율을 최소화, 신생아중환자의 치료기회 지연 사례 감소,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로 인한 신속 정확한 진료서비스 제공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박병란 광주기독병원장은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개소로 광주·전남지역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최상의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한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기독병원(병원장 박병란)은 최근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확장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골다공증 환자 급증...봄철 산행 낙상사고 주의해야

작년 80만명...5년 새 31% 늘어

뼈의 강도가 약해져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골다공증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31.4%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골다공증 환자는 가벼운 부딪힘에도 골절 부상을 당할 수 있어 봄철 산행을 나갈 때에는 낙상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에 따르면 골다공증(질병코드 M80~82)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08년 61만4000명에서 2013년 80만7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 사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도 1404억원에서 1738억원으로 23.8% 늘었다. 진료 인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았다. 2013년 여성 진료 인원은 75만1천명으로 남성(5만6000명)의 13.4배였다.

골다공증은 골량(뼈에 함유된 칼슘의 양)의 감소와 미세구조의 이상으로 뼈가 부러지기 쉬운 상태다. 보통 골

량은 20대 중반~30대 초반 가장 높지만 50세가 넘어가면서 적어진다. 환자 수 역시 50대 이후 급격히 늘어난다. 2013년 여성 환자수는 40대는 549명이었지만 50대와 60대, 70대는 각각 4052명과 1만3413명, 1만5058명이었다.

골다공증은 그 자체로 발생하는 증상은 없지만 작은 외력에도 골절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엉덩방아를 찧거나 손을 짚는 정도로도 손목, 척추, 고관절 등에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고관절 골절의 경우 골절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40%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에는 비타민D와 칼슘 등의 영양소 섭취가 도움이 된다.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등 음식을 통해 섭취할 수 있지만 햇빛 노출을 통해 피부에서 생성되기도 한다. 칼슘은 멸치, 우유, 베이포 등의 음식을 통해 섭취할 수 있으며 부족하면 약물을 이용해서 보충할 수 있다.

/연합뉴스

“내 아이가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 우리집 안심 지킴이 홈CCTV 헬로캠 탄생!

월 7,000원 (부가세 포함 7,700원)
 ※출시기념 혜택 지금 가입하시면 16GB SD카드 증정(1,000대 한정)
 - 3년 약정, 인터넷 결합 기준 / 무선공유기 임대료 별도

“학교 잘 다녀왔어?”

“숙제는 잘 하고 있지?”

“오늘 간식은 뭐 먹었어?”

www.cjhellovision.com